

서유석, 최초 연임 도전… “비욘드 코스피5000 시대 책임자”

〈금융투자협회장〉

금투협 회장 선거, 3파전 돌입
서유석, 대관·연속성 내세워 재도전
황성엽, 업계 ‘정통 증권맨’으로 평가
이현승, ‘관료 출신 CEO’로 구도 합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협회 역사상 첫 연임에 도전한다. 현직 금융투자협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제7대 협회장 선거는 서 회장과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의 ‘3파전’ 양상이 만들어졌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업계와 자본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자 심사숙고했다”며 “최근에 서야 회원사 대표님들께 저의 의지를 밝히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취임 이후의 업계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이 ‘연속성’에 적합한 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뉴스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취임할 때 약속했듯이 저는 회원사의 청지기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회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

며 문제를 같이 해결해 왔고, 업계 활동을 위촉시키는 규제에 맞서 왔으며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워 우리 회원사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운용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전체를 망라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협회장 자리의 핵심 역량으로 ‘대관 능력’을 꼽았다. 서 회장은 “저는 지난 3년 동안 협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야, 국회의원, 여러 유관기관 및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3년 전 회원사가 선택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회원사의 자산이 되었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사람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치밀한 논리와 대관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서 회장은 자신이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책임자라고도 자평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코스피만을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하여 회원사와 함께 정부 당국, 국회와 호흡을 맞춰왔듯이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활짝 열면서 금융투자 업계와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고 나아가 한국을 아시아 금융업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강도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시ết말로 은퇴 후 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경청, 조율하고 국회, 정부, 금융 당국 등과는 전략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정말 치열하게 일하는 자리”라며 “향후 몇 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골든타임 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라 책임감과 강한 추진력

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리더십의 연속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 회장은 회원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공식 출마자는 현재 서 회장을 포함해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등 3명이다.

당초 유력한 여성 후보로 꼽혔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라임펀드 관련 소송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통 증권맨’인 황 사장과 ‘관료 출신 CEO’인 이 전 대표, 여기에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 서유석까지, 세 후보의 업역·관계망·정책 노선이 확연히 다른 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양식품, 불닭이 띄운 ‘황제주’… 증권가 “200만원 간다”

3분기 호실적에 목표가 상향
글로벌 수요확대에 CAPA 상승
높은 이익률에 주가고점 흐름 지속

삼양식품의 주가가 17일 138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53만7000원이었던 주가는 1년 만에 약 2.6배(158.5%)로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삼양식품보다 높은 회사는 효성중공업(216만6000원)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지목된 내수 업종인 데다, 매출 2조원이 채 되지 않고, 주력 제품도 라면에 집중돼 있는 회사가 주당 100만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를 놓고 실적과 성장세가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320억원, 영업이익 1309억원을 기록했다. 호실적을 이끈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여행객이 K-푸드 인기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한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81%까지 확대됐다. 삼양식품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50% 늘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3849억원)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3446억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률은 식품 업계 단연 1위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빼고 나면 이런 이익률을 내는 제조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와 전략적 관세 대응, 고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밀양 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수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점유율 70%까지 기록했던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4년 구독자 58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영국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국 런던 사람들의 반응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국내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다. 영국남자가 올린 영상은 조회 수가 1000만회를 넘어선지 오래고, 소셜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도전)를 하는 사람들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BTS,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 등 유명 인사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상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 CAPA 증설을 넘어 판매 효율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IBK·KB증권도 목표가를 일제히 175만원으로 올렸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어린이 글로벌 대장정
중국서 역사·문화 체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상해에서 ‘제38회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은 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참가인원은 1만 3930여명에 달한다.

초등생 150명 참여 글로벌 프로그램
상해 임시정부·동방명주 등 현장 학습
누적 참가인원 1만 3930여명 달해

이번 제38회 대장정에서는 초등학생 4~6학년 총 150명이 중국 상해에서 11월 6~9일, 13~16일 2회로 나눠 역사와 문화, 산업 탐방을 진행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개항기 역사를 보여주는 와이탄, 상해 푸둥지구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를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성대경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플랫폼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 세대 주역들이 투자와 금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펀드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하와이 거점 확보…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강화

‘센트럴 퍼시픽 बैं크’와 MOU
부동산·이민 등 윈스톱 자문 확대
수요 늘어난 세컨하우스 투자 대응

한국투자증권은 하와이에 위치한 ‘센트럴 퍼시픽 बैं크(CENTRAL PACIFIC BANK)’와 초고액자산가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트럴 퍼시픽 बैं크는 1954년 설립돼 하와이주내 27개 지점을 운영하는 하와이 최대 은행 중 하나다.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및 해외 유학, 이민 관련 세무 및 법무 자문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와이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현지 모바일 बैं킹, 송금 및 환전, 하와이 지역 부동산 중개인 및 세무사, 변호사와의 컨설팅 연계 등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세제 혜택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해외 국가로의 투자와 이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와이는 은퇴 후 거주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컨하우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하와이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부동산 가치 안정성과 낮은 재산세율, 한국의 높은 상속 및 증여세에 비해 유리한 자산 증여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고액



지난 13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아놀드 마티네즈 센트럴 퍼시픽 बैं크 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